

1막 1장 : 지난 6월 22일 (수) 10시 15분. 교육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는 한국 건설 단체 연합회가 주최가 되고 건설부가 후원을 한 94 건설 진흥 촉진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12개 연합회 구성 단체 중의 하나인 대한건축사협회가 보무도 당당히(!) 참석하였음은 물론이다. 굉장하게 터져 나오는 고적대의 음악과 약 10분 간 진행된 대통령 축하. 그리고는 없었다. 모든 행사가 끝난 것이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각종 보고, 치사, 결의, 유공자 포상 등 모든 식순과 일정이 생략된 대한민국 건설 관련인 모두를 위한 한마당 축제였다.

1막 2장 : 장소는 바뀌어 식당. 대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서있는 줄 뒤켠에서 들려오는 꽤나 격양된 목소리.

「무슨 놈의 대회가 이렇게 있어?」

「그러게 말일세 상준다고 새벽부터 난리 법석을 피우지나 말 일이 지, 나 원참」

「포상 대상자 호명도 하지 않는 ××들이 어디있어. 어디서 뭉뚱 손금없는 ××들만 설치대니…」

씩 웃으면서 얼핏 뒤돌아 보니 동그란 뺨지를 단 초로의 두 분 신사. 그렇구나. 참 그렇구나.

우리와 함께 오신 훈·포상 대상자 세 분(울렁증이 생기실가봐 걱정되어 성명은 밝히지 않음)은 어디 계신가. 그리고 보니 우리 회장님도 보이시질 않네. 자리에 앉아서 두리번거리는데 일행 중

의 어느 분의 고함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중앙으로 향해졌다.

「단상에도, 중앙 테이블에도 어디에고 우리 회장님(대한건축사협회) 자리는 없잖아, 이거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구먼. 자, 자 대강 듣고 일어납시다.」

2. 2막 1장 : 시간은 바뀌어 10월 27일.

한강 다리가 무너져 내린 데 대한 대국민 사과문이 큼직하게 도하 신문을 장식하고 있었다. 건설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건설 단체연합회 명의로 대한건축사협회가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이다. 아 그렇구나! 이제 대한건축사협회가 다리 설계도 할 수 있게 회원들의 업무범위를 넓히려고 애쓰는구나.

2막2장 : 다음날인 28일은 서울건축사회 정기총회일. 1천여명이 꽉 들어찬 회의장의 열기가 전달됐음인지 내빈자격으로 참석하신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의 말씀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건축사법 23조의 문제는…설계자격을 법인에게 확대한 것은 건설부와 법제처의 업무착오이며… 법인의 기준에 대한 유권 해석을 건설부가 분명히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3. 인류의 역사란 전쟁의 역사라고 설파한 석학의 말을 되짚어서 음미해 보면 집단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한다. 전쟁이란 것이 하나의 집단의 지도층과 구성원이 개인적 운명과 체제의 존망을 걸고 집단의 힘을 총동원하는 승부라고 보면, 집단이나 민족이 전쟁을 결심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나 조국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행위는 책임을 지는 행위다.

그렇지만, 역사에서 보는 우리 민족은 특이한 민족적 기록을 갖고 있다. 수 많은 침략을 당하고 때론 수동적인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협회는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조직인가.

Declare War against Our Internal Absurdity

朴舒弘 / (주)희산 종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Seo-Hong

우리 스스로 전쟁을 결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멀리는 그리스부터 가까이는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통해 민족적 대각성을 이룬 나라는 존립하고 성장해 간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는 파멸의 길을 걸었다. 역사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결단력 부족과 조직내부의 갈등으로 지구상에서 소멸해 갔던 집단을 여럿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삼국시대만 예외일 뿐 그 어느 시기에나(현재도 마찬가지다)전쟁으로부터의 도피를 최고의 선으로 치부하였던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의 역대 지배층을 형성했던 지식인들 그중 특히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었던 집단의 논리와 윤리라는 것이 전쟁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로부터 나온 위선과 허구가 책임있는 거국적 승부를 해본적이 없는 민족집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다. 역사의 그와같은 필연은 집단 내부의 위선과 준비 결여로 귀결 되어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선 집단적 깨달음의 정각이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전쟁 수행을 결심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 그것만이 최고의 평화를 보장하며 집단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최근 앨빈 토플러는 War and Antiwar에서 전쟁 역사의 방안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조직(국가)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Antiwar의 구조야말로 철저한 준비와 최첨단 병기의 개발에 의해서 만이 가능하다.」

4. 열기를 뿜던 각종 선거가 끝나고 향후 2년을 이끌어갈 책임자들이 결정되었다.

지난 2년간의 시기가 어려우면서도 변화가 많았던 기간이라고 말한다면 앞으로의 그것은 지난 20년과 맞먹을 정도로 변화의 근본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이나 지방에서나 또 본부건 지역에서건 총회에서 캐치프레이즈가 개혁으로 귀착됨은 대단히 다행스런 일이긴 해도, 우리들 앞의 현안문제로 다가와 있는 여러 사안들을 바라볼때 부분적인 개혁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협회 자체의 존립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 정부에 의해 지적받은 도서등록제도의 모순점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 협회가 존재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인 회비는 징수나 운용이나 그 사용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린 협회의 조직과 구성이 하부지향적이며 수평적 연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은 가능한가.
- 새로이 구성되는 집행부가 논공행상식의 구태를 벗어날 가능성은 있는가.
- 집행부 책임자의 편향적인 독선이 물고을 집단내부의 파행은 누구의 책임이며 후일 후배들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자신은 있는가.
- 협회는 경험많은 원로 회원과 패기와 의욕 넘친 젊은 회원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은 불가능한 집단인가.

- 대의제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면 기회균등의 원칙은 우리의 집단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원칙인가.
- 협회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은 기본이지만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회원과 그렇지 못한 회원의 구분마저 할 수 없다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닌가.
- 7백여 회원이 소속된 지역회와 10여 회원을 갖고 있는 지역회를 공평한 시각으로 바라봄이 형평의 원칙을 견지한 민주적인 질서인가.
- 집행부 의결의 수준이란 것이 책임 회피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어용집단이라는 누명은 누가 어떻게 벗을 것인가.
- 정부가 건축을 보는 관료주의적인 권위의식과 기술 우선적 시각이 교정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난 30년간의 정부와의 밀월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 사회가 건축을 보는 양극구조의 인식을 항변하고 홍보하기 이전에 우리 내부의 모순이나 잘못은 없는 것인가.

다음 세기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장래에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새로운 가치로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며, 그것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집단의 존재 가치 또한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때 집단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접근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명적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본질을 추구하고 근본을 파악하려는 방법론의 하나에 기존의 관념에 대한 해체적 방법이 있다. 변화라던가 개혁이라는 단어는 요즘 하도 들어서 진부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원래의 메시지는 강렬하고 신선한 개념이다. 물론 우리의 경우 개혁의 대상은 과거의 청산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과거의 생각, 과거의 제도, 과거의 발상 등 모든 것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엄정하게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치 해부학자의 그것과 같은 날카로움을 동반한 채 선전포고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부를 다스려 나가야 하며 구속되어 있는 외부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협회 정관의 문제이든 아니면 건설부와 의 관계이든 간에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자세만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현재 건설부 관변단체의 성격으로 되어있는 협회만 하더라도 임의단체로 빠져나와 우리의 삶과 공간을 위해 아니 한국건축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고 열정에 찬 재구성을 시도해야 할 적기가 아니겠는가.

또한 우리내부의 모든 불합리한 문제들과도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말이다.

누구를 위해서 협회는 존재하는가?

이제, 협회는 전쟁을 결심하여야만 한다.